

강원도의회, 영동 북부지역 가뭄대응 관계 기관 회의

✎ 이정호 | 📅 승인 2025.07.29



▲ 강원도의회는 29일 도의회 민원상담실에서 김용복 부의장 주재로 영동북부지역 가뭄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도의회 제공

강원도의회가 29일 최근 영동 북부지역의 가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는 도의회 민원상담실에서 도의회 김용복(고성) 도의회 부의장 주재로 열렸으며, 강원도 친환경농업과와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영북지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영북지역 9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60%에 불과하고, 고성 송강·인흥 저수지는 40%대, 양양 현남 저수지는 36.6%로 떨어진 현황을 공유하며 대책을 논의했다.



▲ 강원도의의회는 29일 도의회 민원상담실에서 김용복 부의장 주재로 영동북부지역 가뭄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도의회 제공

특히 8월 중순까지 비 예보가 없는 상황에서 농업용수 부족 우려가 커지자 농어촌공사는 간
이양수장 가동과 취입보 준설 등 대책을 설명하며 “용수 확보에 총력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주민들이 제기한 농업용수 배분 형평성, 양수장 관로 이동, 취수보 설치 등에 대한 건의사항도 집중 논의됐다.

김용복 부의장은 “가뭄 대응의 중심은 현장의 목소리”라며 “주민의 실질적 어려움을 최우선에 두고 적극적인 행정과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호